

“구강정책국 확대개편 마당” 정 협회장, 이상수 민주당 사무총장 면담

정재규 협회장은 9월 3일 민주당 당사를 방문, 이상수 사무총장을 만나 복지부 구강보건과를 구강정책국으로의 확대개편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면담에서 정 협회장은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구강보건과와 상관없는 암 관리과를 구강보건과와 합치는 조직개편안을 시도, 2만여 치과의사는 물론 양식 있는 인사들을 당황스럽게 만들었다”며 “복지부가 결국 조직개편안을 철회했지만 치과인 모두에게 상처를 주었다. 이번 파문을 계기로 치과계는 국민구강건강권 확보와 미래지향적이며 발전 가능성이 높은 치과의료 및 구강보건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이를 뒷받침할 정부 전담 부서가 국차원은 돼야 한다고 결

론, 확대개편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 협회장은 또 “한방의 경우 복지부 조직에서 국 성격의 2개과가 있는 정책관실로 존재하고 있다”면서 “치과의료와 기자재산업 등의 성장잠재력으로 볼 때 치과계가 비교우위에 있는 만큼, 구강정책국으로 확대개편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총장은 “치협이 추진중인 저소득층노인 무료진료사업에 큰 관심을 표명하고 추후 다시 만나 구강정책국으로의 확대개편 방안 등 치협 현안을 논의해 보자”고 밝혔다.

복지부, 전문의제도 규정 공포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30일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8040호)’을 공포한데 이어 9월 18일 ‘동규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258호)’도 최종 공포했다.

이로써 치과의사 전문의 첫 배출은 2008년으로 공식 확정됐다.

공포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등에 관한 규정’과 ‘동규정 시행규칙’의 주요 골자로는 ▲전문과목을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등 10개 과목으로

하며 ▲수련기간은 지정된 수련치과병원에서 인턴은 1년, 레지던트는 3년으로 정했다.

또 ▲수련병원 지정기준은 수련시키고자 하는 전문과목에 관한 진료과가 설치돼 있고, 전문과목별로 전속지도전문의가 있어야 하며, 진료실적 등이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또한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로는 치과의사로서 인턴, 레지던트 수련과정을 이수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수련을 마친 것으로 인정받아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치협 사이버회관 새단장

치협 KDA 포털사이트 오픈기념식이 9월 4일 치협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털사이트 개설로 치협은 사이버 상에 사실상 제2의 회관을 증·개축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치협은 정보통신 대학신을 목표로 지난해 10월 (주)브레인컨설팅과 정보화 조인을 맺은 직후 막바로 기초골조작업에 착수, 사업추진 1년여 만인 이달 사이버 회관 준공을 완료하고 최종 집들이를 개최한 것.

사이버 회관의 인터넷 주소는 www.kda.or.kr로 기존과 동

일하며 자체 웹메일 서비스가 제공되며 클럽개설 및 관리, 개인홈페이지 빌더 기능이 대폭 보강됐다. 또 치과개원 시 입지선정, 금융자본, 인테리어, 세무회계 등 치과경영의 모든 정보를 총망라한 ‘Dental MBA’ 콘텐츠가 개설돼 치과개원 및 경영정보의 메카가 될 예정이다. 아울러 치과임상과 관련 된 각종 학술강연 및 자료들을 동영상 등을 통해 제공하는 ‘사이버 아카데미’가 개설돼, 중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상강연에 대한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지방회원들의 학문적 해갈에도 큰 도움을 줄 계획이다.